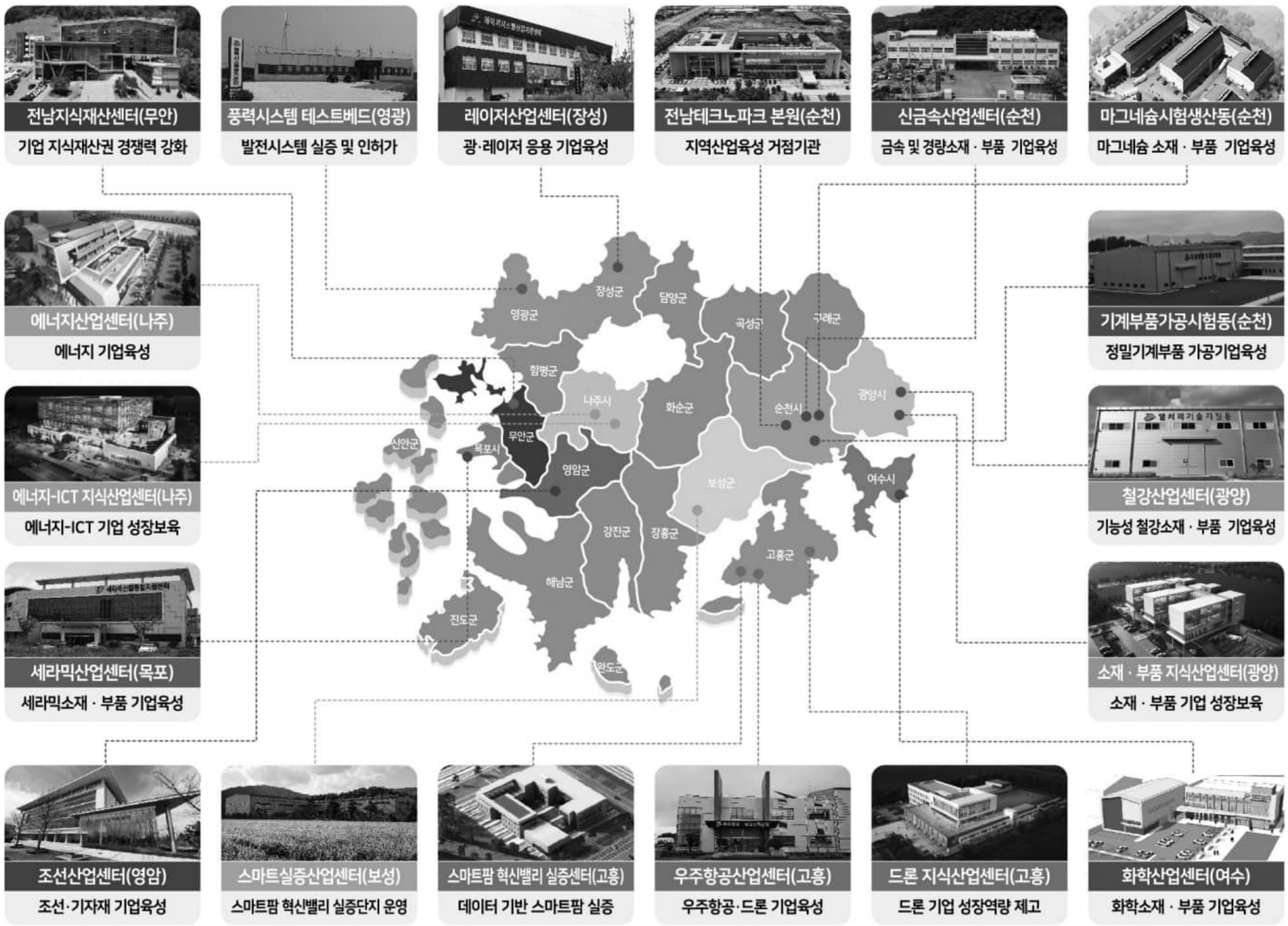
전남도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독보적 실적 눈에 띄네

전남테크노파크

5본부 7실 14개 센터·직원 173명
공모 사업·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지난해 전 분야 목표 초과 달성
타지역 기업 25곳 7137억 투자



지난 2003년 12월 순천대학교 공동실험관에 입주하며 출범한 전남테크노파크는 20년만에 5본부 7실 14개 센터에 직원 수만 173명인 거대 기관으로 거듭났다. 사진은 전남테크노파크 산하 14개 센터 위치 지도.

전남테크노파크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재단법인으로 순천대학교 공동실험관에 입주한 것이 지난 2003년 12월 24일이다. 2006년 12월 27일 통합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신소재센터를 편입해 기틀을 마련한 뒤 현재는 5본부 7실 14개 센터에 직원 수만 173명인 거대 기관으로 거듭났다. 지역 산업과 관련한 전남도의 정책·사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진흥본부 산하에 성장거점지원·기업지원·과학기술진흥·스마트제조혁신·전남지식재산 등 5개 센터, 소재기술지원본부 산하에 신금속·화학·세라믹·레이저·철강 등 5개 센터, 융합기술지원본부 산하에 우주항공·에너지·조선·스마트실증 등 5개 센터가 있다. 여기에 정책기획본부는 경영전략기획실, 산업기술정책실, 디지털산업실 등을 두고 있다. 전남의 기반·미래산업을 뒷받침하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업 정책을 이끌고, 지역 산업·경제 발전 방향을 위해 검토·연구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매년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가운데 독보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2022년 10월 취임한 오익현(57) 제7대 원장이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공모사업 20건 수탁, 신규사업 20개 기획, 고용 창출 923명, 기술 이전 54개, 투자 유치 25건, 사업 발굴 70개, 협력체계 구축 71건 등 전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타 시·도 기업 25개가 전남 곳곳에 7137억원을 투자하고, 628명을 신규로 고용하게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했다. 서울·경기 각각 4곳, 경남 2곳, 광주·대전·충남·충북·경북 각각 1곳의 기업이 전남에 둥지를 틀었으며, 전남테크노파크는 이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조기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방침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0주년을 맞는 올해 '웅비하는 대도약'을 준비하는 신(新)경영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지난 20년을 반성하면서 나아갈 20년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기관 경영' 확립을 내걸었다. 중장기 재단 운영 자립을 위한 수지개선에 나가면서 자체 수입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중앙·지자체에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사업 기획, 유휴공간 및 장비 활용 등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전남에 조성하는 한편 전남테크노파크 내부 지능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디지털 융합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계획 및 전략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3년간 450억원을 투입하는 호남권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사업비 150억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지원사업(30억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내부 정보화 전략 계획(ISP)도 마련한다.

또 지역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다. 주력산업·미래신산업에 대한 전략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한편 미래 시장의 수요에 기반해 핵심 산업 전략을 분석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을 기획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산업별·기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 성공 사례를 도출해 공유할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2023년 전남테크노파크의 업무다. RE100 실현이 가능한 전남의 유리한 여건을 토대로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면서 신규 규제자유특구도 꾸준히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리딩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육성해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그린에너지·첨단운송 등 전남 주력산업 기업을 지원하고, 농공단지·자유무역지역·시군 산업단지 등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들어 여건에 맞는 지원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전남의 과학 기술 역량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도 높인다. 우선 전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 관련 사업 18건을 기획하고, 71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59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연구조직 설립·운영,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노후한 제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혁신하도록 돕고,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화학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세라믹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미래첨단소재 레이저 가공기술 경쟁력 강화, 철강 산업의 신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산업 견인 등 기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창의적 결합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전남의 드론 및 우주항공 산업 성장 촉진, 조선해양산업의 친환경·스마트 전환, 전남 에너지산업의 대전환, 스마트팜 산업의 기술 혁신 등도 목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지역 중기 지원시스템 혁신…미래 산업 다각화 이끌 것"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조선·철강·석유화학 의존도 탈피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고도화
화이트 바이오·수소산업 뒷받침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 위해 최선

오익현(57) 전남테크노파크 제7대 원장은 일본 도호쿠대학 금속재료공학 박사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표교수를 지낸 산업 분야 '현장 전문가'다.

2004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근무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실정, 기술 및 경영 혁신의 걸림돌과 과제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140여편의 학술논문을 작성하고 50여 건의 지식재산권도 가지고 있다.

지역 출신이기도 한 그가 취임 후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취약한 인력구조와 함께 인력난, 그리고 무엇보다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독창적이고 자립적인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력산업의 경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고도화를 통해 미래 산업인 화이트 바이오, 수소 등으로 다각화하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전남테크노파크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미중 무역분쟁을 통한 보호무역 강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전남의 산업과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키워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남테크노파크의 역량과 경쟁력은 매우 중요하다. 취임 직후 조직 내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1일자로 5본부 7실 14센터로 개편했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에 기반한 전남 산업 생태계 혁신과 미래신산업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또 전남도 주력기간산업이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폐플라스틱 자원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시급히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대내적으로는 운영의 효율화로 지속 가능 경영과 내실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고유 기능을 강화해 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고유 기능은 기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첨단 제조업 분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공장 도입 및 저탄소·친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전남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자체와 협력하고 기획해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2022년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이어 2024년 광양국가산업단지도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후보지에 선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올해 12월까지 경쟁력 강화 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역시 하고 있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 에너지신산업 특구 등을 유치한데 이어 2022년 개조전기차 특구, 2023년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특구 등을 지정받았다. 특히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전체 소형어선 중 96%를 차지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을 유해물질 발생이 없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어선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환경에도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화이트 바이오(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산업 육성 지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에 있어서 전남테크노파크는 역할은.

▲지난 2019년 전남테크노파크 영광풍력센터에서 인증받은 3MW 풍력기 모델 20기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8MW급 시험용 풍력기가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 또 광양철강산업센터에는 해상풍력에 필요한 에너지강관 복합 성형 테스트베드가 구축중이다. 또 광양시를 중심으로 한 수소도시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도 전남테크노파크가 함께 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 포스코 홀딩스 그룹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 광양시 등과 협업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발굴과 국고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올해로 우리 기관이 설립된지 20주년이 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ESG 지속가능한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기업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선제적인 산업정책 기획, 핵심 리딩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 지역거점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을,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하나 하나가 실력을 겸비한 강한 조직,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많은 따뜻한 조직을 만들어가겠다.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희망의 20년을 새롭게 기약하고자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